



왼쪽부터 김영균 한국IR협의회 사무국장, 김성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길재욱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 위원장, 김도연 (주)뉴트리 대표이사, 박기범 (주)뉴트리 대표이사, 김상태 미래에셋대우 사장, 송윤진 코스닥협회 부회장

뉴트리 상장소감문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년전 뿌린 "뉴트리"라는 씨앗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꺾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온, 동지이자친구가 되어준 박기범 대표와 우리 회사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협력회사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처음과 같이 항상 저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한국거래소 관계자 여러분과 주관사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성공적인 상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트리네는 이제야 비로서 열 아홉 청년으로서 이 넓은 광장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소재기술로 출발했기에 기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의 꽃을 피워보고 싶었기에 직접 제품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 직접 유통채널을 구축하고자 하는 "변화를 위한 도전"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과정의 결실로 "대한민국의 이너뷰티 시장을 개척한 선도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저희가 꿈꾸는 "10년 젊게 사는 삶을 위한 이너뷰티의 가치"에 대해, 많은 분들이 눈길을 주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저희가 실적으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차근차근 성장해 온 뉴트리네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온

- 1)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새로운 소재들,
- 2) 유통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실행방안,
- 3) 생산과 품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
- 4) 소유와 전문경영 체제의 실제적 입증 등을

"열아홉의 청년! 뉴트리"가 이 광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설렘보다 두려움"이 큰 길임을 알고 있지만, 주주분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함께 하는 많은 주주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며,

함께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도 회피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재차 곱씹으며 다짐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주셨던 신뢰! 저희가 드렸던 약속! 그대로 실현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이 광장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3년내 아시아 넘버원 콜라겐!, 뉴트리 에버콜라겐!을 우선 실현해 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에버콜라겐을 먹고 이자리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근심걱정을 털고 눈가와 이마에 주름이 사라지는 날을 기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날을 저희에게 손을 내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변치 않았던 시절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협력사와 고객사들과 이 거친 금융환경에서도 저희에게 투자를 결정해주신 기관과 개인투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모습을 꼭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